

**무모한 확장은  
삼가해야**

사람은 몸안에 있는 모든 장기가 정상이어야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너무도 당연하다. 육체적인 건강 뿐이 아니고 정신적인 건강과 장기와 더욱 깊은 관련이 있는 모양이다.

눈만 보고 사는 에스키모인은 흰색을 표현하는 말이 11가지나 있듯이 우리나라 말에 장기의 이상에 대한 말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도 알 수 있다.

예를들면 간이 부었다. 허파(肺)에 구멍이 났다.腸의 위치가 잘못되었다(換腸) 심장에 모발이 난다든가 골이 비었다 하는 말들이다. 이중 간(肝)이 비대하다는 말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는 말과도 통하며 자기 능력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고 교만한 행동을 할 때 사용되어 진다.

국민학교 학생들간에 다음과 같은 우화가 전해 진다고 한다.

시골에서 생쥐 2마리가 중앙청 관광을 위해

서 상경하였다. 천신만고 끝에 광화문까지는 왔는데 차량의 홍수로 광화문 베저리를 건널 수 없게 되어 중앙청을 눈앞에 두고 두마리의 생쥐는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다.

한마리는 눈앞에 중앙청을 두고 되돌아갈 수는 없으니 배짱으로 건너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되돌아가자는 생각이었으나 건너자는 생쥐를 따라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따라서 건너게 되었다. 밀려드는 차량의 사이사이를 따라 건너던 생쥐들은 거의 다 건널즈음에 그만 달려오던 택시에 치어 죽고 말았다.

교통순경이 달려오고 죽은 생쥐들은 즉시 병원으로 옮겨져 시체를 검사하게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한마리는 간이 보통 쥐보다 배나 컸으며 한마리는 골이 비었다는 우화가 있다.

축산업의 경기가 회복되고 그 정도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장기화 되는 것 같자 규모를 확장할 것인가 또는 남들이 확장하면 얼마안가서 폭락할 것이니 오히려 규모를 줄여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중앙청을 눈앞에 두고 광화문 베저리를 건널 것인가? 아니면 되돌아 설 것인가? 아니면 광화문에서 중앙청을 보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를 결정지어야 한다.

최근 산란계 초생추 입추가 과열되고 있다고 한다. 돼지의 경우도 번식돈의 숫자가 크게 증가되고 있다고 한다. 사고가 날것인가 무사히 건널 것인가 심히 아슬아슬하고 불안하다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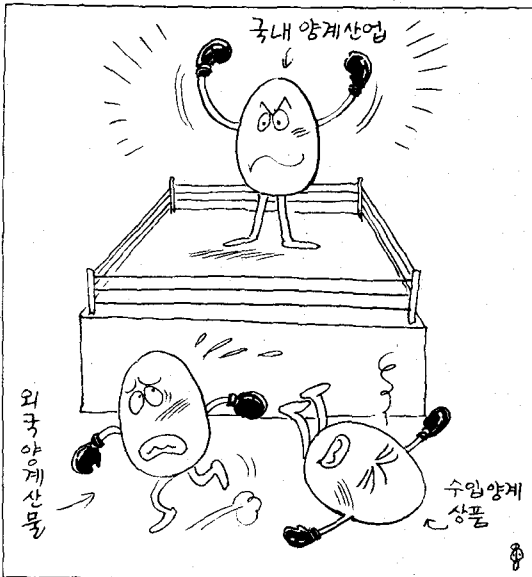
문가들의 의견을 자주 듣게 된다. 우리의 기질이 어느 때는 무모할 정도로 규모확장에 용감해서 주기적인 호황과 불황의 심도를 필요이상으로 크게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몇일 전 한국일보는 한국에너지연구소(팀장: 김영진 박사)에서 한국인 1,921명을 대상으로 (79년부터 81년 사이에 교통사고 등으로 갑자기 사망한 사람) 조사한 바 일본인이나 유럽인에 비해서 간이 크다고 한다.

◇인체의 각기관별 평균무게 비교 (단위 g)

기관	별 나라	간	심장	폐	신장
남	한국인	1864	349	1204	252
	일본인	1600	352	1162	327
	유럽인	1831	345	1169	310
여	한국인	1611	302	957	228
	일본인	1363	284	893	280
	유럽인	1477	275	886	275

이제는 양축가들 스스로 무모한 행동을 해서 간 큰 양축인, 골빈 양축인이 아니고, 협동하는 양축인, 슬기로운 양축인이 되어서 불명예스러운 말들이 없어지도록 하여야 하겠다.



## 값 내리기 경쟁 언제까지나?

요즘 서울 시내에서 닭 한마리에 15~20만원씩 거래된다고 한다. 설마하고 생각할지 모르나 일간지에도 이미 그 실태가 보도되었고 그것도 폼귀라고 까지 한다.

뱀의 구더기를 먹은 닭은 3일 안에 뱀의 독이 전신에 퍼져 털이 모두 빠지는데 이 닭을 잡아 인삼, 대추, 찹쌀을 넣어 꼭 고아 국물을 먹으면 오줌줄기가 바위를 뚫을 수 있다는 정도로 정력이 세어진다는 허풍과 함께 닭 한마리에 15~20만원씩 용계탕(龍鷄湯)이라고해서 팔린다. 용계탕용 닭은 어느 도계장에서 도계가 되고 있는지는 알길이 없다.

3월부터 서울에서 밀도계 단속을 한다는 서울시의 공문 한장으로 농가출하 가격이 지역에 따라서는 650원을 밀도는 곳까지 있다고 한다. 단속으로 지금까지 유통을 담당하던 생계상이 쉬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생산자들은 값내리기 경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출하일령의 닭을 가지고 있는 양축가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값은 고하간에 판로가 막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영세 양축가는 한두번이렇게 당하고 나면 생계까지 위협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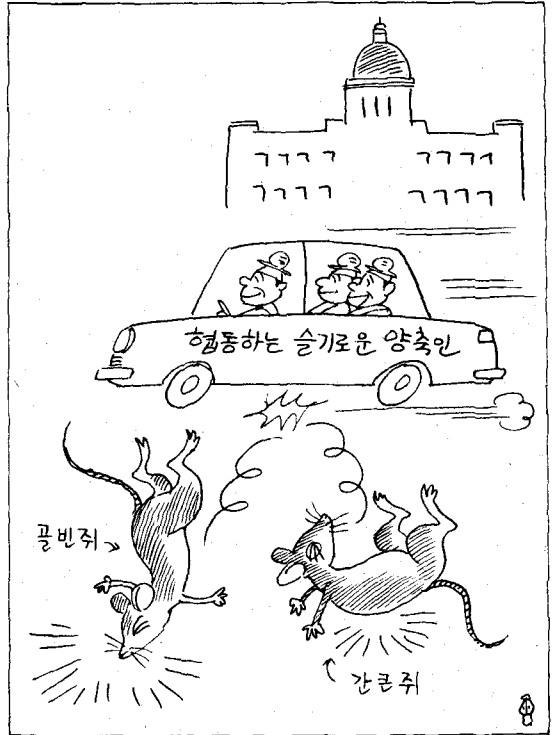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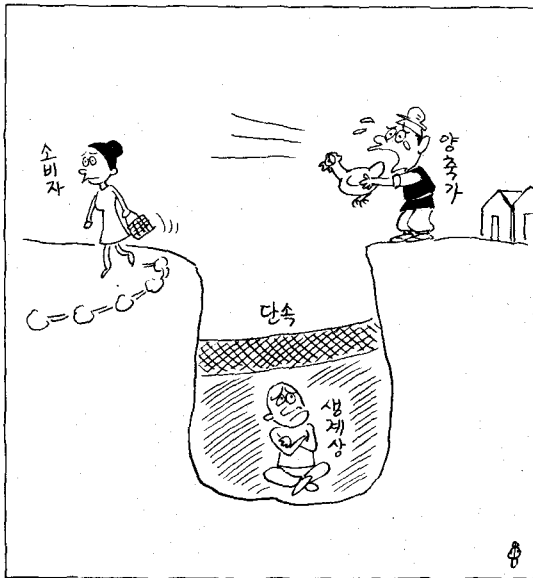
그간에는 생산자들이 결과적으로 생계상들의 벌과금까지 부담해주며 양계를 하여 왔으나 이제는 판로마저 막혀버려 생산자는 물론이고 소비자도 닭고기 구입에 불편을 느끼게 되어 시장에서 닭고기를 추방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

왜 이런 일을 8년간이나 되풀이 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지 기계적으로 매년 되풀

이 한다면 소비자는 닭고기를 용제탕으로나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생산자들 가슴에 매년 쓰라린 고통을 심어주는 일은 그만 두어야 한다.

도계유통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수차례 본지에 게재하였는 바 결국은 이들 방법으로 도계유통이 이루어질 것을, 다만 이 방법들은 실행에 옮기지 않음으로써 문제는 되풀이될 뿐이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88올림픽전에 선진국들의 모임인 OECD(경제협력 개발기구)에 가입하여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될 것이라고 하며, OECD 가입을 위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1조(무역거래에서 수량제한 등 자유화 정신에 어긋나는 국내법의 제한 조치를 최대한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달성해야 한다) 이행국이 되고 제 2 단계로 IMF 8조 이행국이 된다는 것이다.

86년까지는 수입자유화율을 현 76%에서 90%이상으로 하고 가격 금리 환율등의 자율화와 관세구조를 개선하여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도 자율화 되고 산업지원제도도 합리화 한다고 한다.

상공부와 기획원이 자율화의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시행방법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동안 이와는 별도로, 수출입기별공고 총칙개정 때 공정거래 관련법령상 가격용납행위를 하거나 공급부족을 일으키는 독과점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을 개방하게 된다고 개정하였다.

## 축산물도 수입개방 길 트여

최근 상공부와 기획원간에 수입개방에 대한 공방이 신문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양 부처의 이론적 뒷받침을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이 하고 있다.

급격한 가격상승이 유발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경제기획원장관이 수입을 요청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제한 품목에서 예외조치한다라고 기별공고 총칙 7조 29항에 정해 놓았다.

이 조항을 적용시켜 수입이 개방될 품목으로는 분유등 10여개 품목으로 알려졌는데 얼마전 계란도 수입하려고 검토되었던 것을 생각하면 남의 일 같지않게 생각된다.

상당히 많은 농축수산물들이 오랜 불황에서 겨우 값이 회복되려 하면 가격안정을 이유로 수입이 거론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한 우리로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양계산업도 국제경쟁력을 높여 개방정책에 대응하고 힘을 길러 우리의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축산물별	년도별	1인당소비량
육류 총계	81	10.2kg
	82	11.3
	증가율	10.8%
쇠고기	81	2.4kg
	82	2.7
	증가율	12.5
돼지고기	81	5.4kg
	82	6.1
	증가율	13.0
닭고기	81	2.3kg
	82	2.5
	증가율	8.7
계란	81	114개
	82	115
	증가율	0.9
우유	81	14.4kg
	82	14.6
	증가율	1.4

## 계란소비 제자리에

계란값이 다시 하락하고 있다. 학기초에 가계압박으로 소비가 위축되어서라고 한다. 농수산부에서 발표한 82년도 국민 1인당 축산물 소비량을 보아도 계란이 얼마나 열등재 인가를 알 수 있다.

왜 계란은 소비가 증가되지 않는가? 왜 쇠고기가 12.7%, 돼지고기가 13%씩 소비신장이 되는데 닭고기는 겨우 8.7%에 그치는가?

이는 우리가 그 원인을 잘 알면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서는

본문중 미국의 예에서 설명키로 한다.

모든 산업이 광고홍보 없이 판매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82년 한해동안 약 4천 2백 63억 원의 광고비를 지출하였는데 우리는 계란소비를 위해서 무엇을 하였으며 얼마나 투자하였나 생각할 문제이다.



◇ 광고비지출 20대기업

(단위=백만원)

순위	업	체	명	광고비
1	태	평	양 화 학	7,916
2	금		성 사	6,805
3	력		키	6,045
4	동	아	제 약	5,836
5	삼	성	전 자	4,789
6	유	한	양 행	4,462
7	대	웅	제 약	4,420
8	한	양	식 품	4,029
9	해	태	제 과	3,940
10	한	국	바 이	3,521
11	중		근 당	3,500
12	롯데	제	과	3,180
13	농		심	3,173
14	한	국	화 장	3,026
15	피	어	리 스	3,004
16	매	한	전 선	2,866
17	일	양	약 품	2,835
18	제	일	제 당	2,781
19	일	동	제 약	2,751
20	부	광	약 품	2,654

업종별 광고비 사용내역

식품업	844억	19.8%
의 약 품	695억	16.3
서비스 오락	418억	9.8
화장품 세제류	375억	8.8

우리나라의 광고비 지출은 GNP의 82년 0.87%로 미국 2.27%, 일본은 1.0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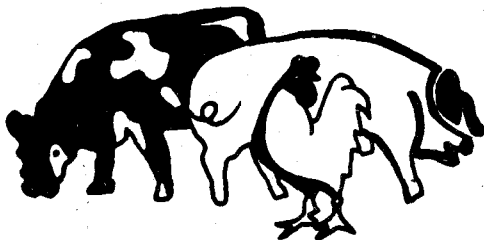
국민 1인당 광고비도 우리가 10,800₩, 미국 213,000₩, 일본은 64,000₩이라고 한다.

우리 축산업계가 82년 사용한 광고비는 사료 동물 약품기계기구 부화 종축업체의 축산잡지나 관련 전문지 광고외에 실제 생산물 소비선전은 유가공업체나 육가공업체만으로 양계산물과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양계산물 시장과 결합되는 것들이었다.

축협중앙회의 돼지고기 닭고기 선전도 결과적으로 닭고기 소비에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계란과 닭고기의 소비증가로 양계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양계산물만의 소비홍보를 위한 별도의 기금이 절실히 필요하다.

# 축산인의 슈퍼마켓



\*양돈, 양계, 낙농, 비육 등 국내외의 우수 수의기축약품 및 수의축산기구 대구·경북 총판 (오리엔탈축유기, 금성 냉각기 등 낙농기자재) 전문도매 및 시설 시공 완비

\*오랜 임상 경험에 의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

## 대영축산상사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165-15 (수성구청 앞)  
 전화 : 73-2888, 73-3335 야간 : 752-7936  
 대표 : 수의사 이진부

# 서울시 닭고기유통 협조사항 전달

##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유통제도 정착

서울시는 지난 2월 7일 닭고기를 위생적으로 처리 공급함으로써 유통체제를 개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여 닭고기 유통제도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협회 등 각 관계기관, 단체에 다음과 같이 협조사항을 전달했다.

### ◎추진 방향

- 비수기(3~5월)에 중점 지도하여 조기정착
- 우선 시행지역을 선정(도심, A.P.T)하여 단계적으로 자율개선 유도
- 유관단체(가금처리협회, 한국육계납세조합, 축협중앙회, 대한양계협회 등)의 협조로 수급상 마찰을 최소화
- 선진 수준의 유통체제 및 개정법령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병행

### ◎문제점

- 생계상의 수익관계로 전환이 안됨.
- 도계업자와 생계업자의 상반된 이해관계로 민원(民願)야기 우려
- 생계단속시 유통상 혼란 및 생산지 체화(滯貨)현상 발생 우려

### ◎대책

- 도계품 판매업으로의 전환을 유도
- 축협중앙회 협조하에 마스크를 통해 홍보 활동
- 양계협회, 가금처리협회, 축산기업조합, 축

협중앙회 등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건물주 및 시장관리인을 밀도계 행위자와 동일취급 방조자로 조치

### ◎단속 계획

•추진방법: 1단계로 2월은 홍보활동 기간으로하고 2단계로 3~5월(비수기)은 도심, A.P.T지역, 시장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단속

•단속 대상:도계장 외에서 닭의 불법도살 행위 및 운반, 도계품 판매소와 요식업소에서 밀도계품 판매 및 취급행위, 밀도계행위를 방조한 자(건물주, 시장관리인, 생계운반자, 생계운반차량 등)

#### •단속실시 요령

○정기단속: 단속반을 시는 4명을 1조로 편성 운영하며 구 단속반을 지도 독려하는 한편 구는 2명을 1조로 편성 운영, 월 4회 이상 실시

○특별단속: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농축과 구청 또는 경찰 합동으로 3명 1조로 3개조를 운영하며, 성수기(6~9월)에 위반에상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정보에 의거하여 밀도계 상습지역을 특별 단속

•조치: 행위자 및 방조자는 고발, 판매·취급업소는 행정처분, 밀도계품은 압수폐기 또는 어린이 공원 및 군건사료로 제공

### ◎효과

- 도계품유통으로 적정가격 공급.
- 위생적인 닭고기 공급 및 도시환경 정비.